

위례신도시 포교 활성화 조계종, '초석'을 놓다

31일 LH와 종교용지 매입 계약... 세종시 이어 두 번째

조계종이 세종시에 이어 위례신도시에 종교용지를 매입해 신도시 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그간 부진하다고 지적됐던 도심 포교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31일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박수홍 위례사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부장 보경 스님과 신도시 종책특보 허은 스님의 부지계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이번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에 전통가람 양식과 도심사찰의 특성을 잘 반영시켜 건립하고, 건립이후 수행과 수행활동의 거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본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지역 단일 사찰들이 종교 용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도시 종교 용지에 대한 공고를 중단에도 알려줬으면 한다. 용지 매입에 있어 종교 간 안배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제 이재영 사장은 "종단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경쟁 입찰로 분양되기 때문에 종교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힘들어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교는 우리 전통문화로 국민 생활과 밀접해 활발한 것으로 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찰 부지로서 적합한 용지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계종이 매입한 위례신도시 내 종교용지(종1부지)는 하남시 감이동 산 85번지 일대로 면적이 10,000㎡(약 3.025평)에 이른다. 이 용지는 그동안 특수전사령부 및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31일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1만㎡ 규모 폐사 부지 매입
33·34대 집행부 노력의 성과
신도시 포교 거점 사찰 건립
안정적 구입 기금 마련 '숙제'**

제3특전여단의 군법당으로 사용하던 호국 사자사와 그 일대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부대 이전에 따라 폐사 예정인 부지를 종단 신도시 포교의 거점사찰로 재탄생하게 됐다.

위례신도시 부지 확보는 자승 스님의 제33대 임기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34대에 이르러 그 성과를 보인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실제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임기 초반 주요 종책으로 신도시 포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세종시와 함께 수도권 포교거점으로 위례신도시 내에 포교거점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는 지난 4월 세종특별자치시 종교용지 확보와 더불어 제34대 집행부의 성과"라면서 "기존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의 명백

을 유지 계승하고 수도권인 위례신도시 내에 포교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매입한 부지위에 전통사찰의 양식과 현대적 감각을 갖춘 건축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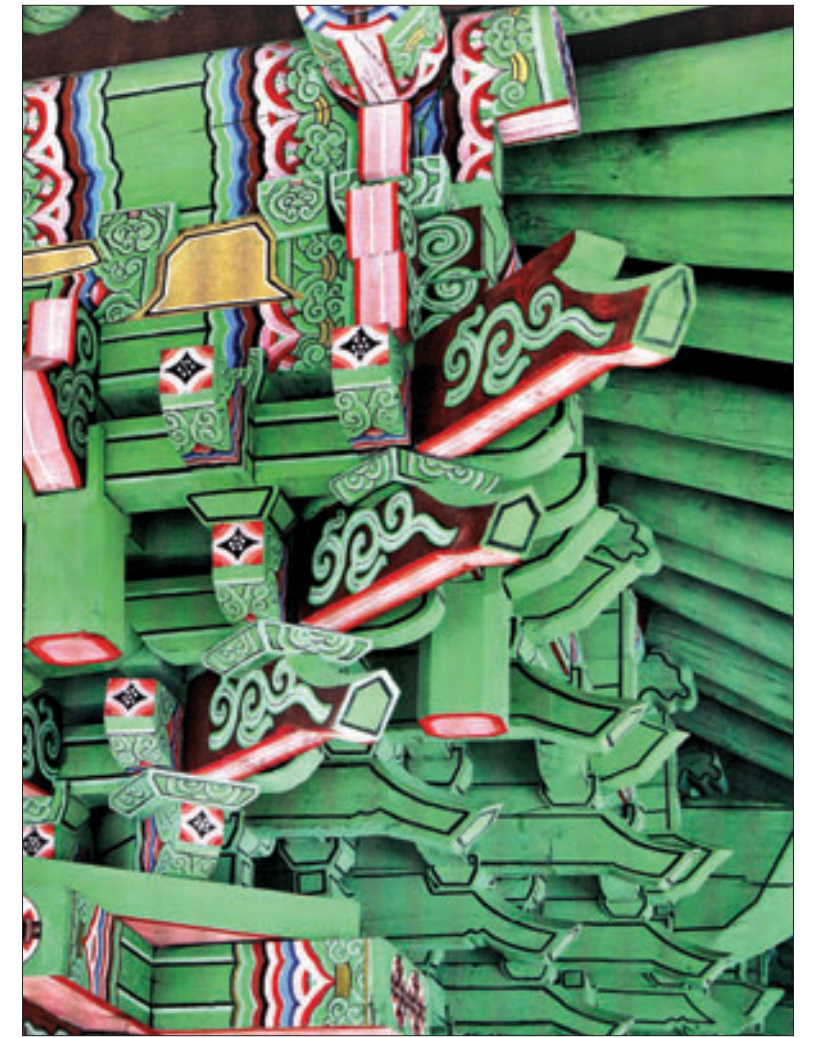
하지만 종교용지 구입 대금은 남은 숙제 중 하나다. 지난 3월에 매입한 약 3000평 규모의 세종시 종교용지는 구입대금은 50억 원 가량이고, 위례신도시 종교 용지의 대금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신도시에서 종단 차원의 포교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급선무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장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과 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면적이 약 678만㎡에 인구 약10만 8천명, 4만 3천여 가구가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유리건판으로 보는 불교미술>에 실린 황해도 황주 심원사 보광전 처마의 옛 모습(사진 왼쪽·1930년 촬영)과 현재 모습(사진 오른쪽). 귀공포 위 추녀를 받치고 있는 인물상(사진 왼쪽 점선 부분)은 특이한 양식이지만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신라말 조선 국사가 창건한 황주 심원사의 보광전은 다포계 팔각집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계 건축 양식으로 그 가치가 크다.



일제시대 北불교문화재 옛 모습 대거 공개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발간

사찰·성보 169점 소개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
건축사적 학술 가치 높아

1900년대 초 북한 불교문화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펴낸 북한 지역 문화재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집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에는 일제시대 북한 불교문화재 총 169점이 소개됐다.

83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한 이번

사진집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감독 하에 촬영된 것으로 △사찰건축(30점) △불교회화(15점) △불교 조각(33점) △불교공예(10점) △석조미술(81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사진집은 문화재 복원과 한국 불교건축사 연구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북한 지역에는 1945년까지만 해도 8개 대본산과 400여 사찰이 있었으나 한국전쟁과 북한정권의 종교 탄압으로 현재 60여 사찰만이 남아 있다.

사진집에는 대찰이지만 한국전쟁



으로 소실된 황해도 패역사, 금강산 장안사 등의 옛 모습과 조선시대 신앙 대상이었던 개성 화강사 고려 공민왕 진영, 북한 불화 화승 계통을 살필 수 있는 개성 대웅사 감로도 등 현재 전해지지 않는 문화재를 볼 수 있다.

강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현상이 소개되는 것이 전부였다"며 "현존하지 않는 북한사찰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복원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진집의 원자료가 된 유리건판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통치 방안으로 1909년부터 1940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총 3만 8000여 장에 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목록화 사업 이후 2007년 1차로 궁궐 편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8면>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9월 30일까지 접수, 11월 발표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의

공로를 치하하고 불법홍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26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은 교구본

사 주지와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등 추천권자가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 사찰, 스님, 종단신도등록자로서 5년 이상(대상 후보자는 20년 이상) 해당분야 포교활동중인 자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포교대상 추천분야는 △계종포교 △지능포교 △문화체육포교 △사회포교 △매체포교 △지역포교 등이

며,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 등으로 나뉘어 시상하게 된다.

포교대상 후보 추천자는 소정 양식의 추천서와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등 구비서류를 9월 30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1004호 INDEX

시방세계 (사)자비명상, 부탄 가사공양



5 종합
끝이 안보이는 조계종·선학원 갈등
사찰·종단, 신도 주민번호 수집 금지
특별한 여름 템플스테이 10選
진계 스님 전법계 등 8종 문화재 추진

6·7 신행·부지
한마음과학원 어르신 마음공부 회향
폭염 대비 교계 복지관 지원 프로그램
24 불교로 읽는 고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 체험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여래 부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큰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오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휴연하 나타나는 큰 노스님이 주장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불꽃같은 빛이 반짝반짝하게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실고 와서 황동색 재공정에 앉았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들여져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놓고 다기돌을 울리기 위해 울기려 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정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나?"고 놀라시며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 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셨다. 그리고 석재공정에 전화를 하시어 똑같은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석장이 "큰스님, 왜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원래 이 돌은 묘색신 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다섯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묘색신여래부처님, 셋째 광각신여래부처님, 넷째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부산광역시 남구 장교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진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 개방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